

회의록

회의 일시	2026년 7월 1일(수) 19:00 ~ 20:30
참석자	천안시티FC 사무국장, 경영지원팀장, 선수단지원팀장,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장
회의 안건	2026시즌 전반기 운영 결과 발표 및 질의 응답

	내용	비고
회의 내용	<p>1. 개회 인사</p> <p>2. 사전 질문 질의응답</p> <p>Q. 천안시티FC는 충남 지역의 대표 시민구단임에도 관중 수와 팬 층 확대 측면에서는 아직 성장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단에서는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팬 유입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과 팬 친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p> <p>A. 천안시티FC는 '경기장을 다시 찾고 싶은 경험'을 만드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구를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함께 즐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홈경기마다 다양한 컨셉의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단의 친근한 이미지인 마스크트 호람이 IP를 적극 활용해 경기장 안팎에서 팬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MD 상품으로도 접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인 만큼 지역과 함께하는 홍보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명소를 찾아 게릴라 홍보도 진행했고, 지역 축제와 다양한 지역 밀착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천안시티FC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 단위 팬은 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20대 팬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국대에도 접촉을 시도했었고, 최근에는 백석대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20대 팬 유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p> <p>Q. 또한 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제 구단 운영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p> <p>A. 지난해 11월 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하나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장패드, 키보드 키캡, 마그넷 같은 라이프스타일 MD를 요청해 주셨는데 장패드와 키캡은 이미 출시했고, 마그넷도 현재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컵, 우산, 여름 가방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반다나의 경우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 제작 때는 사이즈를 키우는 방향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매표소 인근으로 MD샵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p> <p>현재 구단은 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W구역 2층 광장을 메인 게이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층에 위치한 매표소를 2층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다만 경기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구조이다 보니 도시공사에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하중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어, 해당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단의 장기적인 계획은 서측(W구역)을 메인 게이트로 조성해 MD샵, 매표소 등 팬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p> <p>또한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연간 팬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당시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완료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시에는 별도로 공개할 만큼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결과를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자리를 통해 주요 결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p> <p>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팬 서비스와 이벤트 부분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게릴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팬분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피로스와의 적극적인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팬분들이 실제로 아쉬움을 느끼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팬 커뮤니티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당시 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일부 팬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단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p>	

F&B와 관련해서는 가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구단은 경기장 내 F&B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은 도시공사에서 발주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CU에서 운영을 맡고 있어 구단이 직접 가격이나 운영 방식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이 내년이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단은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기 위해 경기장 외부 먹거리 공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푸드트럭 운영을 직접 관리·조율하면서 팬들에게 보다 나은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초창기 운영 당시 메뉴 구성이나 품질 등이 구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홈경기부터 운영 업체를 변경했고, 현재는 푸드트럭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도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구단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이며, 내년 계약 종료 이후 구단이 F&B 운영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메뉴 구성과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부분을 직접 관리해 팬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올해 일시범적으로 출입 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단도 관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팬들의 이용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 게이트가 설치되고 유료화가 시행되면 장기 주차 차량이 줄어들면서 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지금보다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차장까지 포함해 구단이 대관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주차 운영 역시 일정 부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팬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경기력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도 충분히 팬들과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벤트, 응원 문화,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설문은 제피로스뿐 아니라 전체 팬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특히 제피로스에서는 경기장 전광판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맞은편에서도 경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존 전광판의 정보 전달이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구단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원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다. 경기장 응원 환경에 대한 팬들의 불편 사항은 구단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며,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문조사에서는 길거리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의견도 예상보다 많이 접수됐습니다. 이러한 의견들도 함께 참고해 향후 홍보 방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팬들께서는 경품을 더욱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단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구단의 특성상 경품 이벤트가 선거 기간과 맞물릴 경우 선거와 관련된 행사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운영에 다소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단은 현물 협찬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고, 실제로 협찬 경품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막전에는 농협조공법인의 밥솔과 이마트의 TV를 경품으로 제공했으며, 이 외에도 치킨 등 다양한 협찬 경품을 준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팬들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협찬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정버스와 관련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신청 인원에 따라 버스를 운영하고, 비용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장거리 원정에는 버스를 추가 배치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 의견은 현재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승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셔서, 지난 부산 원정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장마다 버스 주차 공간이나 현장 협조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단이 원하는 수준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팬 여러분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좌석 운영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대권이 중고 플랫폼 등에서 재판매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대권의 재판매 문제는 구단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으로, 현재는 운영 방식을 변경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용 티켓과 초대권의 디자인과 색상을 서로 다르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판매용 티켓과 구분이 명확하도록 초대권은 별도의 색상을 적용해 재판매가 쉽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단 직원들이 각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초대권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Q. 2026시즌을 앞두고 감독 교체와 선수단 대폭 개편이 이루어졌고, 구단에서도 '변화된 천안시티FC'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구단 특성상 예산과 선수단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단이 판단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3~5년 내 K리그2 플레이오프권 진입 및 K리그1 승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지난 시즌에는 감독이 중도 사임하면서 감독대행 체제로 시즌을 운영했고, 이후 감독 교체와 함께 선수단도 대폭 개편했습니다. 구단은 올해 '변화하는 천안시티FC'를 강조하며 새로운 비전 체계를 발표했고, 장기적으로는 K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과 승격을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감독 교체와 선수단 개편은 단순히 성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구단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수단 운영 뿐만 아니라 전력 강화 시스템, 선수 육성, 팬 기반 확대 등 전반적인 체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향후 3~5년 안에 플레이오프를 꾸준히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재도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를 하나씩 보완해 나간다면 지금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감독님의 계획 중 가장 안되고 있는 게 뭔가요?

A. 감독님께서 현재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은 외국인 선수 영입입니다. 그동안 전력강화실과 전력분석관이 국내외 추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영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입 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영입이 사실상 확정됐던 선수들이 계약 직전에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됐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선수 영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구단의 선수 추천 공용 메일을 통해 후보를 추천 받고, 전력분석관과 전력강화실이 먼저 검토한 뒤 영입이 필요한 포지션의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이후 감독과 함께 협의해 최종 영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분석만으로는 선수의 실제 경기력을 완전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영입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필요할 경우에는 전력강화실 관계자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선수를 확인한 뒤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관중 수 증가를 위해 경기장 시설이나 편의성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스탠딩석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A. 구단은 현재 경기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변석 설치 등 시설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구단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시청에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시설 관리 주체인 도시공사로 내려가고, 도시공사가 공사를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장 스피커 개선입니다. 재작년부터 스피커 문제를 지속적으로 시청에 건의했고, 지난해 예산이 확보되면서 올해 도시공사를 통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재도 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청에 전달하고, 필요성을 설명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변석을 비롯한 다른 시설 개선 역시 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단 중 경기장 시설을 직접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천안시티FC는 현재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이 직접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스탠딩석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구단은 시청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관련 자료를 전달한 상태이며, 이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추후 업데이트되는 대로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Q. 이후 우리 팀의 목표와 전술은?

A. 선수단지원팀은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수들이 외부 식당을 오가며 식사를 해야 했고, 헬스장 역시 아파트 헬스장보다도 협소한 시설을 이용하는 등 훈련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올해 3월 식당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선수단 전용 **헬스장과 샤워시설, 회복을 위한 냉·온탕 시설**도 마련되어 선수들이 훈련 후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헬스기구도 현재 약 70% 정도 설치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더 빠르게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코리아풋볼파크 등의 영향으로 헬스기기 수급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선수단이 훈련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식사 역시 훈련 일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팀과 피지컬 코치, 그리고 전문 영양사인 식당 점장이 함께 식단을 구성하고 있어 선수들의 컨디션과 훈련 일정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 뿐만 아니라 선수단 지원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선수들 건강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더위를 이겨내고, 필승하기 위해 선수님들은 어떤 보양식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A. 선수단 식사는 현재 주 1회 특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골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계절에 맞는 시원한 메뉴와 보양식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메뉴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현재는 운영 체계를 하나씩 맞춰가는 단계입니다. 초기와 비교하면 선수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며, 앞으로도 선수단 지원에 더욱 신경 써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선수 참여 이벤트시 동영상 촬영 공개 가능하신 분으로 하는 건 어떤지요. 영상의 결과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A.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원정경기시 원정버스 승하차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원정버스의 주차구역이 매번 달라 혼동을 야기, 타 구단 협조를 통한 버스주차구역 활용가능 여부확인 요청)

A. 원정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기장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삼성, 부산, 대구 등 일부 구단은 원정버스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길가에 버스를 정차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단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기장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과 별개로 원정버스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식과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빠르게 개선이 가능한 만큼,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Q. 전반기 성적에 관한 구단내부의 종합 평가는 어떤가요?

A. 전반기를 돌아보면 패할 수도 있었던 경기에서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며 승점 1점을 가져온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싸웠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 쉽게 승리를 놓친 경기들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집중력이나 여러 경기 운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다만 박진섭 감독 부임 이후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수비 안정감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점률만 봐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격에서는 득점력이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가 영입 직후 부상을 당하는 등 변수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코칭스태프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자주 지켜보는데, 정규 훈련이 끝난 뒤에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공격 전술과 마무리 훈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공격적인 부분도 점차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여름 이적 시장에 관한 진행사항 및 전력 보강 계획 등 선수 추가 영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금 이적 시장 대비해서 저희 이제 정리랑 영입이랑 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한 명은 영입을 했고 이제 조만간 오피셜 나갈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단 감독하고 강화 실행하고 전체 이제 정리가 필요한 포지션 그 다음에 영입할 포지션 리스트는 다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 다 검토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주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서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됐든 좀 변화를 주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Q. 구단에서 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A.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구단 담당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티FC는 프로화 이후 다른 구단에 비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다소 안정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단도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 성장 속도가 기대보다 더뎠던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고, 직원 교체도 계속 이어지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단의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커져야 MD의 품질도 좋아지고, 팬 서비스도 확대되며, 구단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수준이 함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팬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공감해 주시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경기장을 찾는 코어 팬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제피로스 응원석도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지난해보다 안정된 경기력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팬 여러분의 꾸준한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단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크게 공론화하기보다는 먼저 구단에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따끔한 지적도 충분히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구단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포터즈가 구단을 질책하고, 팬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구단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현장 질문 질의응답

Q. 여름 이적시장이 다른 구단보다 늦어 보이는데, 영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다른 구단들은 이미 굵직한 영입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선수 영입과 기존 선수단 운영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수단 정원과 예산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영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단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재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적합한 선수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 선수가 아니라 팀 전술에 가장 잘 맞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를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내 선수든 외국인 선수든 모두 같은 환경이며, 저희가 원하는 선수를 100%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선수 입장에서는 여러 구단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천안시티FC가 최우선 선택지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연봉, 계약 조건, 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영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도 영입 후보군은 꾸준히 리스트업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선수들에게는 영입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최종적으로 다른 구단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단이 더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쉽게 놓친 사례들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선수 영입 모두 비슷한 상황이며, 구단이 원하는 선수를 모두 데려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다만 구단의 경쟁력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앞으로는 선수들에게도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선수 영입 과정에서 천안시티FC가 선수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그 원인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특히 천안을 거쳐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의 평가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A. 구단과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선수 영입은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에 맞고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박진섭 감독 부임 이전 선수단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현재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는 활동량이 많고, 수비 조직과 포지션 변화가 많은 전술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술적 기준에 맞지 않는 선수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계약 해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선수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른 부분이지, 구단 환경이 좋지 않아 떠났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구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역 출신이 아니고 올해 처음 천안에 왔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 부분도 많았습니다. 훈련장이 바로 앞에 있고, U12-U15-U18-프로팀이 모두 한 공간에서 훈련하는 구조는 천안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선수와 지도자 간 소통이 원활하고,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연계 육성을 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종합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축구단만 사용하는 전용구장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공사나 시에서도 축구단뿐 아니라 다른 이용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스피커 개선이나 스탠딩석 설치 등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도 시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시장과 시의회, 도시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러한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지금 현재 부상 선수가 조금 있잖아요. 사르자니, 고태원, 박대환 그리고 안보이는 하재민은 어디갔나요?

A. 피로골절입니다.

Q. 이현왕 선수는요?

A. 이현왕 선수는 조만간 오피셜이 나갈 예정입니다.

Q. 이바닐도 선수 훈련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몸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A. 지난 주 연습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을 했고

Q. 나쁘지 않다고요?

A. 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고.

Q. 저희가 공격포인트가 왜 부족하냐고 했을 때 “이바닐도 선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며 이바닐도 선수에게 의지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만큼 저희도 이바닐도 선수를 기다리고 봤는데..

A. 그 부분은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선수 영입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경기 영상을 볼것까지 분석하고, 선수의 리그 수준과 경기 환경,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영

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영입한 선수라도 실제로 팀에 합류한 이후에는 기대했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바닐도 선수 역시 팀에서 기대했던 역할이 있었지만, 부상 등으로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선수 한 명에게만 의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선수 영입 방식과 전력 운영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저희 팀 어린 친구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계속 이바닐도 얘기 하는데 제가 막상 보니까 ..

A. 현재 이바닐도 선수는 감독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트리에도 포함될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현재 컨디션을 고려하면 당장 선발 출전보다는 우선 경기 명단에 포함되며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단에서도 이바닐도 선수가 단계적으로 경기 감각을 회복하며 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경기장 스피커를 보완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들어보니 개선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피커 교체는 구단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통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구조인가요?

A. 스피커 교체와 관련된 권한은 전적으로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다만 구단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해 예산을 편성하며 개선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일부 장비를 보완하는 것보다는 스피커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근데 저희가 2년 이상 스피커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데, 교체 전에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처럼 다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결국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A. 저도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공사의 설명으로는 본부석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실제로 민원 내용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Q. 근데 여전히 밖에서 들을 때에도 아산vs대구 경기 했을 때보다 소리가 작습니다,

Q. 저도 W석에서 경기를 보는데, 마지막 홈경기에서 스피커를 교체한 이후에도 W석에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피커를 꺼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맞은편은 소리가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A. 현재 상황은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도시공사로 내려보내야 하고, 도시공사가 그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스피커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지적과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홈경기에서는 이전처럼 간이 스피커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Q. 그리고 우리 선수단 기준에서 지금 키퍼가 4명이잖아요. 4명 모두 나이대가 있는 선수인데, 해당 포지션도 보강 계획이 있나요?

A. 그 포지션도 지금 변화를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Q.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작성한 부분인데, 보조 전광판에 추가시간 송출은 혹시 반영이 되는 건가요?

A. 해당 부분은 우선 이번 경기(김해전) 전에 리허설을 통해 시스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적용이 어렵다면 시스템적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아니면 지금 맞은편(원정석 쪽) 전광판을 좋은 걸로 변경해주시면,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이벤트 하는 거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없어서 선수단 소개를 하면 원래 저희가 앞을 보고서 응원을 해야되는데 지금은 다 뒤를 보고 하니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설적인 거 장리를 했던 것 중에 올해 W석 의자를 새걸로 바꿨는데, 그 부분에 아무도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불필요한 교체인거죠, 시설 개선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먼저 교체하기보다, 구단과 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도시공사가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 경기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단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제안하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돈으로 전광판이나 스탠딩 석을 미리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의견입니다.

A.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이 직접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해당 공사와 관련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다만 이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우선 개선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공사를 미루거나, 실제 관람객이 많이 이용하는 반대편 시설을 먼저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서측에는 우선 테이블부터 설치해 실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겨울에 기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됐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수단 벤치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단에 직접 예산이 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시에서 예산을 도시공사에 배정하고 도시공사가 다시 입찰과 공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한 구조입니다.

Q. 거리에 현수막들은 잘 보이는데, 이게 축구 홍보가 맞는 문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리그라는 타이틀도 빠져 있고, 축구 경기라는 타이틀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천안시티FC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안시티가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A. 해당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Q. 키캡을 출시하셨는데 전체 키캡 세트도 기획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A. 현재로서는 키링만 준비가 되어있는데, 전체 키캡 세트도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재입장 시 도장을 찍는데, 도장 말고 이전처럼 손목 띠로 해주시면 안되나요? 도장이 잘 번지고 유니폼에도 계속 묻어나서 걱정이 됩니다.

A. 처음에 띠를 했었을 때는 띠가 잘 안보여서 도장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다시 띠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겠습니다.

Q. 저희 상징 컬러가 하늘색, 검정색, 흰색인데 저희 유니폼에는 하늘색, 검정색이 많습니다. 따라서 마킹을 흰색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줄 수 있나요?

A. 내년 유니폼에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유니폼 관련해서 내년도 카라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목에 뭔가를 거는 걸 싫어하는데, 카라가 있어서 시즌권을 목에 걸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A. 해당 부분도 다양한 의견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학 축구동아리나 고등학교 축구 동아리 등 생활체육 기반의 축구 커뮤니티와 연계해 팬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단위보다는 동아리 단위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기 미출전 선수들이 동아리를 코칭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 해당 의견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유니폼 공개 이미지가 나왔을 때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쁜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지금도 라운드 베스트 등 올라오는 사진들이 조기축구 유니폼 판매하는 마네킹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해당 사진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갈 수는 없나요?

A. 사진 촬영은 처음으로 지역 업체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업체의 레퍼런스가 좋아 직접 컨택해 진행했지만, 이전 진행한 업체들과 비교해 작업 기간이 다소 길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이틀 정도면 결과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면서 유니폼 공개 일정도 다소 지연됐습니다. 또한 색상 보정이 제대로 맞지 않아 실제 유니폼보다 민트색에 가깝게 표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유니폼 판매 일정이 촉박했던 관계로 우선 해당 사진을 사용했고, 이후에는 전체 사진을 다시 보정해 현재는 실물 유니폼과 최대한 동일한 색감으로 수정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 맵시는 어떻게 홍보대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A. 홍보대사 운영은 구단이 지속적으로 섭외를 진행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 협의를 통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보대사 형태로 진행하면 섭외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개막전에 외부에서 하프 타임 공연을 제안하며 트로트 가수 섭외 등의 이야기가 오갔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홍보대사 운영 방향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아이들도 섭외비가 500만~7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비용 부담이 큰 편입니다. 반면 홍보대사로 함께하면 본인들도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서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Q. 경기장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중 학생들이 난간에 올라가거나 기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를 팬들이 직접 제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요원들이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관람객들이 안전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나 공지를 강화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A.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게이트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은 경기 종료 후 선수단 인사 시 관람객이 물리는 상황을 고려해 그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기로 안전관리 대행사와 협의했습니다. 또한 경기

중에도 안전요원이 난간 주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난간에 기대지 말라는 안내물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안내 이미지도 제작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Q. 원정버스 업체가 매년 변경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

A. 올해 원정버스 업체는 예산 적인 측면도 더 저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유소년이 사용하고 있었던 업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Q. 올해 운영된 원정버스와 관련해 몇 가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장거리 원정의 경우 좌석 간격이 좁고 좌석 확장 기능이나 휴대폰 충전 기능이 없어 장시간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편의 기능이 갖춰진 차량을 우선 배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일부 차량에서 실내 냄새가 심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금번버스로 배차 부탁드립니다.

A. 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확인해서 최신식 차량 위주로 배차를 요청드리겠습니다.

Q. 휴게소에서 오래 머무르기보다 경기장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해 현지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게소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지난 원정에서는 휴게소가 공사 중이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휴게소 체류 시간과 경기장 도착 시간을 함께 고려해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A. 해당 부분은 서포터즈 측의 정제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Q. 현재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좌석 지정을 진행하고 있나요? 같이 동승하고 싶은 지인이 있는데 떨어져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A. 현재는 신청 순서와 탑승 위치에 따라 호차를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신청 순서에 따라 좌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함께 탑승하고 싶은 분들의 성함을 쓸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Q. 천안패밀리 업체가 이전에는 10% 할인 등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혜택이 없습니다.

A. 천안 패밀리 정책은 2024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에는 10만 원 상품을 100개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했습니다. 후원회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목표 수량을 채울 수 있었지만, 대부분 구단이 직접 부탁해 가입한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특히 2025년 재계약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과 비율이 컸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기존 10만 원 상품은 모두 폐지하고, 금액을 조정해 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했습니다. 기존 혜택들도 구두 협의를 통해 운영되다 보니 구단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점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정책을 새롭게 개편해 운영 중이며, 구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제휴 업체는 약 5~6곳 정도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 홈경기 경품으로 받은 "일퍼센트 치킨"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 기간 중 약 2주 동안 매장이 휴무라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A. 업체 측에 요청해 사용 기한을 변경해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에스코트 관해서 아카데미 학생들은 에스코트가 기본 혜택인가요? 중복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고, 아카데미 학생들이 대부분 홈 선수와 함께 입장하는 거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요?

A. 선수 배정과 관해서는 이전에 제피로스 키즈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해당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선착순 등 사전에 협의한 기준에 따라 운영했습니다. 최근 팬 모집 프로그램 역시 모집 방식은 일부 랜덤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종 선정은 선착순 기준에 따라 순번을 정해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아카데미 참가자들에게 별도의 특혜를 제공하거나 우선권을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Q. 이미 이동협 선수 마킹한 아카데미 학생이 이동협이랑 손을 잡고 가고 이게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게 다른 아카데미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A. 현장에서 해당 선수나 현장 스태프한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 부분의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Q. 다양한 굿즈를 만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재질이나 사이즈 디자인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A. 처음에는 MD 운영을 대행사에 맡겼는데, 2024년까지 적자 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는 일부 온라인 운영만 대행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존 대행사가 온라인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했지만, 별도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홈페이지 구축 업체에서 온라인몰을 무상으로 구축해 주면서 현재의 방식으로 약 2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운영을 맡기더라도 직원이 직접 운영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업체 관리가 가능한데, 이전에는 그조차 어려워 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현재 업체와는 계약을 이어가지 않을 계획이며, 그동안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MD 품질과 운영 퀄리티를 충분히 고려해 개선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하프 시즌권이 판매 되고 있는데 경기당 따져보면 하프시즌권 단가가 더 낮습니다, 또한 시즌권 판매 시 제공했던 마그넷, 짐색 등을 한정판이라고 했는데 이번 하프시즌권에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한정판의 개념이 아닌 거 같습니다.

A. 티켓 할인율만 따지면 똑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Q. 코리아컵을 따지면 단가가 더 낮습니다.

A. 코리아컵은 별도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담당자에게도 티켓 가격의 할인율이 기존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운영하라고 지시했고, 대신 추가 제공되는 구성품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구매자보다 하프시즌권 구매자의 혜택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마그넷은 제공되고 다른 구성품은 제외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확인이 부족했던 점이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Q. 원정버스 승,하차 관련해서 작년과 제작년에 승,하차했던 장소와 달라지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원정팀에는 원정버스 승,하차 장소를 배정해주는데 차라리 이 장소를 우리 팬들의 주차 구역으로 활용하면 안 될까요, 우리도 원정 가면 주차장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 처럼 상대팀에게 우리도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A. 해당 부분은 담당자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역을 배정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 홈 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상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따 보니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Q. 앞서 원정버스를 최소 1대는 고정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장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은 굳이 반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 함께 탑승하는 직원이 업무를 마치고 탑승하는 시간까지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E게이트로 입장하는 팬들의 수가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정 팬들이 굿즈를 사러 왔을 때 물품이 너무 적으니까 W게이트 쪽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가능할까요?

A. 말씀하신 것처럼 MD샵은 장기적으로 외부에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단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현재 위치에 설치한 것은 공간적인 제약 때문이었고, 위치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장 외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컨테이너 설치 등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투입해 외부에 MD샵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복도 공간이나 서측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측 매점 공간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해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맹에서도 원정석과 중립구역 운영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만큼, 중립구역을 고려한 MD샵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MD샵 위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서측 공간으로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MD샵과 매표소 등 주요 시설을 서측으로 이전하고, 필요하다면 서측 외부에도 스피커를 설치해 경기 분위기를 경기장 밖까지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시설에 대한 권한을 구단이 100%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니 보니 추진 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협의 과정도 많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향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해 두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시즌권 운영과 관련해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VIP시즌권을 4년째 구매하고 있는데, 매년 좌석 운영 범위와 가격이 조금씩 변경되다 보니 기준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좌석 운영 기준이 보다 일관성 있게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VIP시즌권 판매 당시에는 이용 가능한 좌석이 제한돼 있었는데, 일반 예매에서는 그 위쪽 좌석까지 개방된 것을 보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반 예매에서 개방할 예정인 좌석이라면 시즌권 구매자도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에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A. 그 부분은 게스트 운영과 관련된 사정이 있습니다. 구단에는 경기마다 게스트가 많이 방문하는데, 게스트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IP석 상단에 테이블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옆 좌석까지 시즌권으로 판매하게 되면 게스트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구역은 시즌권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래쪽 좌석을 운영했으며, 이후 일반 예매를 통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Q. 어쨌든 제 옆자리에서 시즌권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야되는데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AD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간혹가다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A. 그 부분은 제가 구단에 온 이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현재는 VIP석과 특성화석, 서측 VIP 공간의 경우 예매가 마감되면 좌석 현황을 경호팀에 전달해 지정 좌석이 아닌 경우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구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좌석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경호팀과 다시 협의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출입 대

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경호팀에 요청해 즉시 확인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돈을 낸 분들의 가치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Q. 중계카메라는 위치 고정이 안되는건가요? 자리에 앉을 때 제 바로 앞에 카메라가 가리는지 그것부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는 또 카메라가 사라졌더라고요.

A. 말씀 주신 카메라는 아마도 저희 업체가 컨트롤 하는 전광판 업체 카메라인 거 같아요, 현장에서 의견을 주셔서 초반 두 경기 제외하고는 전부 필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할 생각이고, 시야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인력들을 배치하겠습니다.

Q. 제3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A. 제3팀 유니폼 착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원정 팬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을 구분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면서 중립구역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나 가족이 서로 다른 팀을 응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제3팀 유니폼은 특별한 제재 대상이 아니며, 국가대표 유니폼을 착용하고 관람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폐회 안내